

#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장은 가상도시

## d = D ≠ d

### 광주디자인비엔날레 D-9

▲출품작과 시민참여 작품 공개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은 23일 북구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이번 디자인비엔날레 유명전에 출품된 안드레스 자크의 '즐거운 나의 의회'를 공개했다.

'즐거운...'은 담양에서 가져온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 구조물에 플라스틱 양동기와 식물, 가구, 형광등을 쌓아올린 대형 설치 작품이다. 일반적인 집은 휴식의 공간이지만 이 작품은 '정치적 장소로서의 집'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 관람객들에게 친근한 소재인 대나무를 이용해 집 내부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2일~10월23일)의 개막을 10여 일 앞두고 출품작과 전시장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또 작품 설치가 막바지에 접어드는 등 개막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전시장을 하나의 가상 도시로 표현하고, 자유롭게 오르내리며 전시장을 조망할 수 있는 복층형으로 연출하는 등 이색적인 전시 구성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안드레스 자크 '즐거운 나의 의회' 첫 공개 아이웨이웨이 '필드'는 전시관 앞마당 설치

를 만들었고, 빛을 통해 다양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재단은 이날 또 광주지하철 금남로 4구역에서 이번 디자인비엔날레의 시민참여프로그램 중 하나인 '나도 디자이너'의 개막식을 열었다. '나도 디자이너'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민 디자이너 12개 팀이 4가

역 내부공간과 전동차, 금남로 2~3가 지중 전력선 지상기기 외벽면, 비엔날레전시관을 경유하는 63번, 84번 시내버스 외벽면 등을 디자인하는 프로그램이다. ▲디자인 도시를 산책하듯 즐기세요=이날 공개된 전시장의 특징은 하나의 가상 도시를 연출했다는

것과 신문의 섹션 형태로 전시장을 나눴다는 점이다. 또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전시실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관람객 편의를 위한 배려도 눈에 띈다.

제1전시실에 들어서면 대부분 신문의 1면처럼, 정치 섹션으로 꾸며졌다. 관람객과 첫 대면하는 작품은 펠리페 리다오(핀란드)의 '정치 캠페인 포스터'. 정치인들이 대중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디자인적 접근 방법들을 모아 전시로 풀어냈다. 선거용 배지, 포스터, 의상, 깃발 등이 전시된다.



23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4구역에서 열린 '나도 디자이너' 개막식에서 광주거주작가 지크라 판(34·태국)씨와 시민들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복층형으로 설계된 제2전시실은 관람객들이 작품을 감상하면서 다양한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함께 지켜볼 수 있게 했다. 또 저가 합판과 페인트 탓에 개막 초기에는 눈이 따가워 전시장을 제대로 돌아다닐 수 없었던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 전시장이 쾌적했다. 한편 가장 기대되는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히는 아이웨이웨이의 32여 원대 명작 '필드'는 비엔날레 전시관 앞마당에 작은 돌을 깬 뒤 설치하게 된다.

김은영 전시부장은 "디자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장이 굉장히 재미있게 꾸며졌다"면서 "잘 정돈된 공원을 거닐듯 편안한 마음으로 디자인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희기자 kroh@kwangju.co.kr

## "통일 후 제 노래가 국가로 불리길 바랍니다"

### ■아시아문화포럼 참석차 광주 찾은 음악가 정 추 선생

"자유를 사랑하고, 항일 운동과 독재 반대 운동에 끊임 없이 나섰던 광주는 무등산의 정기를 그대로 이어받은 고장입니다. 분단이 끝나고, 통일 조국에서 제 노래가 '국가'로 불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주 출신으로 카자흐스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망명 음악가 정 추(89) 선생이 23일 광주를 찾았다.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한 '아시아 문화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에 온 정씨는 24일 아시아문화포럼 '영 아시안 세션'에서 세계 각국의 젊은이

들에게 '구소련 고려인의 옛 노래 발굴과 나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할 예정이며 자신의 대표곡들도 CD로 들려준다.

정 선생은 남과 북에서 모두 외면 받았던 불우한 음악가였다. 정 선생은 광주고보 재학중 조선어 사용이 문제가 돼 퇴학 당한 후 월북했다. 이후 차이코프스키 음악원에서 공부하던 중 북한 우상화에 반대하는 운동을 주도,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추방된 그는 현재 카자흐스탄 공화국 예술인 칭호를 받고 살고 있지만 고향 광



주와 '통일 조국'에 대한 염원을 잊지 않고 있다. "제가 가사까지 직접 쓴 '내 조국'은 제 음악을 소개하는 연주회에서 언제나 피날레로 부르는 곡입니다. 통일 후에는 이 노래가 '국가'로 불리길 바라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는 곡이죠." 카자흐스탄 망명 후 정 선생이 심혈을 기울여온 작업 고려인의 전래

민요를 채록하는 것이었다. "5~6kg에 달하는 장비를 들고 일일이 녹음을 했고 이걸 모두 악보화(化)했어요. 이 민요들은 또 제가 한곡씩 관현악이나 합창곡을 작곡하는데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90에 가까운 나이이지만 정 선생은 김소월 시인의 작품을 곡을 부친 성악곡을 작곡하는 등 지금도 꾸준한 음악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1997년 광주를 찾은 정 선생은 59년만에 광주고보(현 광주고)에서 명예졸업장을 받았으며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다. 지난해에는 그의 인생을 소개한 다큐 '미행, 망명자 정추'가 EBS에서 방영되기도 했다.

대표작으로 '한국을 주제로 한 교향미곡' '조국' 등이 있으며 그가 수집한 전래민요는 '소련 고려인의 노래(전 3권)'라는 책으로 출간됐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천상의 목소리 '조수미 콘서트'

### 세계무대 데뷔 25주년 기념... 30일 문예회관 대극장

소프라노 조수미 콘서트가 오는 3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보헤미안'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조씨의 세계무대 데뷔 25주년을 기념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조씨는 이탈리아 베르디 극장에서 오페라 '리콜레토'의 질다 역을 맡으며 세계 무대에 첫발을 내디뎠다.

공연 레퍼토리는 조씨가 25주년을 기념해 출판 예정인 기념 음반 수록곡들로 꾸며졌다.

박상현 지휘자가 이끄는 모스틀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협연하는 1부에서는 오페라 '카르멘' 중 '그대가 보내준 그 꽃은', 그녀의 대표 앨범인 '우리 러브'에 수록돼 많은 인기를 모았던 오페라 '보헤미안 걸' 중 '대리석 궁전에 사는 꿈을 꿔요', '스페인 노래', '그리나다', '집시와 새', 비제의 '카르멘'을 편곡한 '집시 카르멘' 등 열정적인 곡들을 들려준다.



2부에서는 오페라 노르마 중 '정결의 여신', 번스타인의 오페레타 '캔디드' 중 '우리의 낙원을 만들어 가요', 바이올린의 선율과 합창이 어우러진 '달의 아들' 등을 들려주

며 뮤지컬 가수 윤영석과 함께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 넘버들을 선사한다. 티켓 가격 15만원~3만원. 문의 02-587-708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여성재단 9~11월 강좌 수강생 모집

### '여성 마을 기업가 육성' '양성 평등 강사 양성' 등

지난 6월 공식출발한 광주여성재단이 9월부터 다양한 교육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9~10월 진행되는 강좌는 현장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여성 친화적 기업가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

원하는 '여성 마을 기업가 육성 교육' 공무원과 NGO활동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여성 NGO 실무 능력 교육', 현재 양성평등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강사의 역량강화와 신규 강사 발굴을 위한 '양성 평등 강사 양성 교육'이다.

또 11월에는 지역 사회 중추적 역할을 할 여대생과 20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차세대 여성 리더 교육'이 마련돼 있다.

세부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는 재단 홈페이지(www.gjw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670-0541~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2010 大韓民國 신지식인 대상 수상



### 오리요리 신지식인 박만순의 상차림 코스요리 등



수상배경 눈,코,입을 동시에 즐겁게 하는 즉석 불꽃구이 효소 웰드릭 점 한방오리구이

건강에 좋은 백초, 술손 "발효 효소" 상시준비 단체모임환영

점심특선 별미오리탕 6,000원

봉선동 월드덕 많이많이 사랑해주세요! 062)671-2177,1177

•광주1등맛집 •다담회 한국맛집 •(주)외식공간 오리요리 최고맛집 •우리은행 우리나라우리명가 •광주은행 소호명가

## 古家 고향의 맛- 고가 한식 뷔페 오픈

일시 중단 하였던 한식 뷔페를 다시 차리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의 잃어버린 입맛을 찾아 드릴 한식 뷔페에서 맛과 정성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약탕기 홍삼삼계탕

홍삼의 15가지의 엄선된 약재와 견과류를 첨가한, 차별화된 진한 육수의 참맛을 선사합니다. 홍삼은? 한의학적으로 가장 오랜 약용 역사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우수한 건강 보조식품입니다.

### 고가약오리탕

약탕기홍삼삼계탕 13,000원  
 약오리탕 반마리 20,000원  
 1마리 40,000원  
 토종닭 백숙 45,000원

한/식/뷔/페 6,000원

예약문의 062)226-8254  
 ※주차장 및 계모임, 단체모임 가능한 연회석 완비